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이 1일 폐막식을 끝으로 86일 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사진은 본전시장은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2전시관에서 작품을 관람 중인 관람객들의 모습.

# '모두의 울림'...지속가능한 예술 방향성 모색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24.9.14~24.12.1 15'Gwangju Biennale '15회 광주비엔날레

##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결산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한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0개국 72명 작가가 참여한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한국 전통음악 장르인 '판소리'를 은유로 동시대 공간을 소리로 탐구하는 전시였다.

참여작가 모두가 생존작가로 꾸러졌으며 여성작가 또한 40여명에 이르는 등 동시대 담론을 시의성 있게 반영했다.

특히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는 광주 기반 예술가를 참여작가로 선정해 지역 거점을 적극 활용하는 등 광주와의 연결성도 놓지 않았다.

개별적인 소리가 각각의 전시실을 채워 조화를 이룬 전시는 '판소리'의 원뜻이 '공간'과 '소리'를 함축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또한 전시를 관통하는 소리를 인간과 비인간, 이주와 반이주 정책, 자유와 억압을 오가는 하나의 내러티브로 제시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이외에도 유서 깊은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이어온 양림동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로 펼쳐냈다.

양림문화센터,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한부철 갤러리, 한희원미술관, 양림쌀롱, 옛 파출소 건물, 빈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 개성이 드러나는 주제적 공간에서 본전시와의 연결을 시도했다.

양림동 일대를 걸으며 감각이 직조한 다양한 사운드 스퀘이프를 경험하

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양림동을 찾았다.

또한 전시 기간 중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공연 등에 참여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한강 작가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전시의 3개 섹션 소제목 '부딪침 소리', '겹침 소리', '처

음 소리'를 의역하면서 니콜라 푸리오 예술감독의 전시 기획 의도가 우리말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판소리, 모두의 울림'은 '판'(공간)과 '소리'의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문제를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소리'라는 테마로 연결된 5개 전시실을 거닐며 관람객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지속가능한 공간과 미래를 사유했다.

동시대 예술의 흐름에서 시의적절하고 실험적인 담론을 흡수하려는 문화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방문도 이어지면서 문화예술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올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는 전시 경험을 잇는 아트숍 등 체험 공간이 조성됐다. 독창적인 디자인의 컨테이너 건물

로 세워진 아트숍 G#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념 상품부터 체험 상품까지 총 300여 종을 선보이며 또 다른 체험의 장으로서 호응을 얻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스페인 유력 매체 유로파프레스, 이탈리아 종합지 A DN 크로노스, 독일 웰스트리트 온라인 등에서도 광주비엔날레를 보도하는 등 세계 5대 비엔날레로서 명성을 굳건히 했다. 국내외 언론의 호평 속 연이어 전시장을 찾았다.

관람객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종합 관람 만족도는 81.7%로 2000년 이래 역대 최고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보다 5.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본전시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된 파빌리온은 다채로운 주체의 참여로



3전시실 프랭크스컬피 작품 '광주기록'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모습

**'판소리' 은유로 보편적 주제인 '공간' 문제 탐구한 작품 '눈길' GB토크·어린이 프로그램 인기, 관람객 만족도 81.7% '최고' 각국·기관 31개 파빌리온 참여, 동시대 미술 다층적 흐름 조망**

동시대 미술의 다층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22개 국가관, 9개 기관 및 도시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개 파빌리온은 본전시와 흐름을 같이 하며 광주

지역을 문화 현장으로 만들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펼쳐진 시민 참여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세대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약 3만 명이 참여하면서 문화예술 향유의 주체성을 높였다.

지난 9-11월 총 5회 진행된 GB토크에는 캔디스 윌리엄스, 나미라, 노엘 W. 앤더슨, 아몰 K. 파틸, 김영은 등이 티스트와 큐레이터 파베우 아니츠, 김범준 교수 등이 참여해 관람객들과 학제적 대화를 나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간 주말에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열렸다. 전시 주제인 '소리'를 중심으로 한 '나의 판, 소리', 생태-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GB 작은 숲',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등에 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최명진기자



## 이학수 옹기장·김향순 명창 大賞

### 제6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시상식 성료

새대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회,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가 주관하는 제6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달 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식전 공연으로 광주 링컨학교 학생 댄스팀 카운터어택 '위대한 쇼맨 ost' 무대, 제회 공연부문 대상 수상자 김동연(설장구) 선생의 장구 무대, 김해진 외 5명의 '살풀이춤' 등이 펼쳐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화유산 부문 이학수 옹기장, 공연 부문 김향순 판소리 명창이 대상을 받았다.

한우물상은 김한수(지호 공예가), 박채배(무궁화 화가), 이당금(연극인), 이일천(기록사진), 전양금(전통춤, 호남검무), 최용재(폼바) 씨가 각각 수상했다.

특별상 미래인재상은 김다정(판소리), 김용(대금), 이민후(판소리 고수, 연주자) 씨가 받았다.

특히 이날 대상 수상자인 김명창은

수여받은 상금 500만원을 전부 재단에 후원하기로 해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시상식 이후 한우물상 수상자 최용재의 '폼바' 공연을 비롯해 김다정의 판소리 중 '심청가', 김용의 대금 연주, 김향순 명창의 '단가' 등 무대로 차례로 이어졌다.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는 "예인으로 한길에만 매진해온 장인은 물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보답과 격려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상인만큼 수상자들의 능력과 가치가 특별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동전통문화대상은 29년 간 문화사업에 치중해온 대동문화재단이 예인으로 한길에만 매진해온 장인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보답과 격려의 마음으로 전하는 상이다. 2019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올해로 6번째 시상을 마쳤다. /최명진기자

## 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25 상반기 청소년단원 모집

### 2-6일 원서 접수...7일 오디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권기원)이 2025년 상반기 청소년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꿈과 재능이 있고 용모 단정한 광주 거주 초등학교 4학년(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응시가능)부터 고등학생 1학년 까지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2일부터 6일 오후 5시까지이며, 네이버폼(<https://naver.me/FpxHkeUI>)에서 원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7일 오전 10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실시하며 실기전형 지정곡(설재호 곡 '그네 친

구', 윤극영 곡 '따오기' 중 1곡), 음정 테스트와 면접전형으로 이뤄진다.

최종 합격자는 12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오는 17일부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 합창,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활동, 공연 수당 및 활동지원금(장학금) 지급, 단복·간식 제공 등 특전이 주어진다.

정기 연습일정은 학기 중 매주 화, 목(오후 6시-9시), 방학 중 매주 월-금(오전 10시-오후 1시)이다. 정기공연 및 외부공연 시 상황에 따라 연습이 추가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 /최명진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